

# “22일 실탄 받고 박격포까지 동원 국군통합병원 투입”

## 5·18 계엄군의 고백

<3> 20사단 사병 첫 증언 정 모씨

“80년 5월 22일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서 점심을 먹고 국군통합병원 정령작전에 투입됐다. 나는 실탄 20발씩 들어있는 탄창 2개를 보급 받았지만 5개까지 받은 부대원도 있었다. 우리보다 앞선 부대원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들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62연대 2대대 소속 일병이었던 정모(59)씨에게 여전히 5·18은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다. 수년 전 술집에 지인에게 탁 한 번 떨어놓았을 때 ‘나쁜XX’라는 소리부터 들은 뒤론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 익산시에서 만난 정씨는 ‘아는 게 없으니 할 이야기도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동안 공수부대원이나 장교들의 증언은 일부 있었지만, 광주항쟁에 투입됐던 20사단 사병의 언론 인터뷰는 정씨가 처음이다. 정씨는 “광주진압작전의 대부분은 공수부대가 주도했고 20사단은 지원

개인당 40~100발 수령...간첩설?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 24일 광주 교도소 지원...3공수여단 시신 암매장 얘기 들어 “모교 광주교도소 확보작전 투입 ‘운명의 장난’ 같았다”

임무만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20사단 출신 장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등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유포하고 있지만 정씨의 의견은 달랐다.

전북 김제시 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씨는 “5·18 당시 부대원 사이에서 광주시위는 북한 고정간첩이 주도했다는 소리가 돌았지만 광주에서 학교를 나온 나는 믿지 않았고 간첩으로 의심될 만한 사람들은 본 적도 없었다”고 당사를 회상했다.

1980년 5월 17일 계엄확대조치와 함께 경기도 양평군에 주둔하고 있던 20사단은 서울 시내 10여개 대학에 부대를 진주시켰다. 정씨의 대대는 서울시립산업대(현 서울시립대에) 투입된다. 20일 오후 고교 5년 선배였던 소대장이 김씨에게 “하마터면 광주로 갈뻔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왜 소대장이 광주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지, 대학에서 본 ‘전두환 물려가라’ 피켓 속 전두환이 누군지 몰랐다. 그날 밤 정씨는 다른 부대원들과 청량리

역에서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광주 송정리 역으로 출발했다. 단순히 광주에서 시위 진압을 하는 줄 알았던 정씨는 이른날 아침까지 한번도 쉬지 않고 달린 기차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다.

정씨가 소속된 62연대는 전교사에 주둔하며 광주~목포간 도로 봉쇄작전에 투입되던 중 22일 오후 화정동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했다. 전교사에서 실탄 40발을 수령한 정씨는 왜 실탄까지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중대 박격포병은 81mm 박격포를 어깨에 매고 갔다. 포탄은 지급되지 않았다.

정씨는 “통합병원까지 걸어서 이동했는데 주민들이 ‘전방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왜 광주에 왔느냐’고 물어 ‘우리부대는 나를 포함해 광주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 걱정말라’고 대답했다”며 “통합병원에 도착할 때 쯤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씨가 속한 8중대는 그나마 뒤처져 있어 총격이 달했지만 앞선 6중대는 치열하게

교전했다. 정씨 바로 옆 벽에도 총알이 날아와 박혔다. 20사단 총정작전 보고에 따르면 당시 작전은 ‘군 부대 요원 및 민간 부상자 치료’ 목적을 위해 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20사단은 22일 오후 5시부터 장갑차 3대를 선두로 내세워 작전을 전개했으며, 이매실(여·당시 68세)을 비롯해 민간인 8명이 총상으로 사망했다.

통합병원에 도착한 62연대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다 24일께 광주교도소 방비 지원에 나선다. 정씨의 부대는 교도소 뒤편 야산에 A형 텐트를 치고 경계를 섰다.

정씨는 “당시 시민군들이 교도소에서 정치범들을 빼낼 수 있다는 설이 돌았다”며 “나중에 교도소 습격설도 나왔는데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부대는 아니지만 3공수여단이 교도소 뒤쪽 땅에 시신을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불쌍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하루 빨리 행방불명자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시민군 최후 항전지인 도청 진압작전이 전개된 27일 오전 모교인 광주교도소 학교 확보 작전에 투입됐다. 그는 이를 ‘운명의 장난’이었다고 표현했다. 동산대 뒷산~교육대 뒷산~계림초를 지나 졸업 후

4년 만에 총을 든 군인 신분으로 모교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광주교 출신이니 나보고 앞장서라고 했다”며 “그냥 담을 넘으면 총격을 받을 것 같아서 철책 담 밑을 파고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다시 모교를 방문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미리 진압했던 다른 부대원들이 오인사격을 해 사상이자 시신을 뺏아 아찔한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시민군은 없었다. 공수부대와 달리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20사단 장병에게 지역 주민들은 주목받 등을 가져다 줬다. 매일 군용식량만 먹었던 정씨는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씨는 “7공수여단이 일은 다 벌려놓고 뒷수습하러 들어간 우리는 아직까지 5·18 피해자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며 “박준병 20사단장은 별 4개를 달고 국회의원까지 했지만 나는 트라우마를 겪으며 가정이 파탄나 환갑이 다 된 나이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5·18을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다”며 “잔혹하게 시민을 학살한 5·18 장본인들이 모두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정의가 있는 세상인가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김용희기자 kimyh@

## 정수기 등 장기 렌털 후 중고물품으로 되팔아 수익원 챙긴 7명 적발

실업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수익원어치의 안마의자, 정수기 등을 장기 렌털해 인터넷에 중고물품으로 되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윤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배모(여·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0대 청년 실업자,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62명 중 58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윤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1년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62명을 모집해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

이후 이들 명의로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 정수기, 비데, 공기정정기 등 무려 364건을 장기 렌털 계약을 맺은 뒤 물건을 되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털 업체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가의 60~70%만 받고 판매해 4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금 납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명의자가 파산선고를 해서 낼 수 없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은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건당 20만~3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챙겼다. 총 7개 렌털 전문업체를 상대로 벌행한 이들은 의심을 피하려고 물품 수령 장소를 각기 다른 곳으로 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선거구민에 목욕쿠폰 줬다가...

○--담양에서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와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6000원짜리 목욕쿠폰을 줬다가 나란히 검찰조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

○--16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A씨는 지난달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6000원짜리 목욕 쿠폰 5장을 제공했으며, 그의 아내 B씨는 지난 2월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목욕 쿠폰 130장(7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쿠폰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두환 아호 판 ‘일해공원’ 명칭 바꾸고 친필 새겨진 ‘호국로 기념비’ 철거해야”

합천·포천 등 여론 거세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하는 등 반성없는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경남 합천군과 경기도 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황강 옆 합천읍 5만 3000여㎡ 터에 68억원을 들여 조성한 ‘일해공원’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일해란 명칭은 합천이 고향인 전 전 대통령의 아호로,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 관심을 높여 공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채택됐다. 당시 일해공원 명칭에 대해 전국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군은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확정된 뒤 군비 6000만원을 들여 표지석까지 세웠다.

이지역 경남시민주권연합 집행위원장은 “단순 비리가 아니고 수많은 국민을 사지로 내몬 혐의를 받는 인물의 아호를 딴 건 문제가 있다”며 “군민들이 절치를 거쳐 명칭 변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포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호국로 기념

비’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의정부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입구에 높이 5m, 폭 2m 규모로 세워진 호국로 기념비에는 전 전 대통령의 친필 글씨로 호국로(護國路)가 한자로 새겨져 있다.

호국로 기념비 아래 현판에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분부로 건설부와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로서 ‘호국로’라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고 적혀 있다.

이명원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라면서 “재임 시절에 저지른 범죄만 허더라도 헤아릴 수 없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도 환수하지 못했는데, 공덕비에는 그를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철거 이유를 밝혔다.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에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민원은 국토교통부에 접수됐다. 단체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호국로 기념비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철거 촉구 캠페인을 하고, 17일에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마르지 않는 눈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구선악(여·77)씨가 아들 이정연 열사의 묘역에서 오열하고 있다. 이 열사는 80년 5월 27일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인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에게 희생됐다. /최현배기자 choi@

## 경찰, ‘이명희 갑질’ 피해자 10명 넘게 확보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10명 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이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출석요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이사장을 부르기 전 피해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방침

을 세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 이사장을 폭행 및 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하는 영상이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